



제사협 화북에 등지 틀다 1월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준공식에서 이동한 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을 비롯해 김태환 도지사(왼쪽에서 여섯번째)와 양성언 도교육감(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달 본격 시행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연령·학력 제한 없어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한다.

요양보호사는 보험수급자(중증)에게 신체요양과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급과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2급으로 나뉜다.

연령이나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이론강의와 실기연습, 현장실습 등으로 진행되는 120~240시간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수료

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누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29일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연 1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국가자격(면허)을 소지한 간호사는 200시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등은 190시간의 교육이 면제돼 교육을 40~50시간만 받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제주도는 노인요양 및 재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년 6월 30일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전문교육기관 ‘우뚝’

‘사회복지아카데미’ 상설 운영...종사자 역량강화
적극적 정책 제안 등 사회복지 현안 발굴도 앞장

제주시 화북동에 새 등지를 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이하 협의회)가 사회복지 종사자는 물론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교육훈련시스템을 운영, 도내 유일의 사회복지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협의회는 올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아카데미’를 상설 운영, 7개 분야 18개 과정에서 40회 교육을 실시한다.

분야별로는 ▲특별강연 ▲행정실무교육 ▲자원개발 ▲사회복지홍보 ▲정보화교육 ▲자원봉사교육 ▲지역연계교육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달과 9월에 각각 명사 초청 특별강연과 사회복지정책 특별강연을 실시하는 등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을 2회 시행한다.

행정실무교육은 기초행정실무교육 2회를 비롯해 관리자 행정실무교육 4회, 예비 사회복지 종사자 행정실무교육 4

회, 방문교육 5회 등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 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사회자원개발 1회와 프로젝트 작성의 이론과 실제 1회 등 자원개발 분야 2개 과정, 국가복지정보시스템활용교육과 사무OA 활용교육, 전산회계자격증 취득반 등 정보화교육 분야, 자원봉사교육 분야, 지역연계교육 분야 등 다양한 교육이 예정됐다.

협의회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교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위 및 담당업무

별로 교육대상자를 세분화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사회복지정책의 흐름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현안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사연구전문위원회에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등을 확충,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조사 연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조사연구 결과는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다. 연구보고서도 발간한다.

또한 지난해 위원회 성과물

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장애인복지예산 대폭 증가
시설 탐방홍익이동복지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파크골프·소식마당
우리아이희망제주센터·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기고·독자의소리
- 특집 7면
제주생태자원 활용 보육프로그램

NH NongHyup

Vision 2015와 함께 바뀌는
농협의 새 얼굴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NH**농협, 대한민국 No.1 유통·금융 리더가 되겠습니다

NH농협은 새롭게 탄생한 농협의 새 얼굴입니다
국민의 신뢰, 농업인과 고객의 행복,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이란
큰 뜻과 대한민국 No.1 유통·금융 리더라는 희망찬 비전을 담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NH농협!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for Nature & Human **NH** NongHyup

농협의 새 얼굴 NH는 농협의 영문자 Nong Hyup의 머릿글자로 Nature & Human, New Hope, New Happiness 등 자연과 인간의 조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로고(Logo)입니다

장애인 복지예산 두자리수 증가

제주시 · 서귀포시 전년비 각각 11.3% · 15% 늘어

저소득 장애인 · 시설 수용자 생활안정에 도움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해 저소득 장애인과 시설 생활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올해 6개 분야 27개 사업에 216억1800만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194억5300만원보다 21억6500만원(11.3%) 늘어난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장애인이 입소 ·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시설과 부랑인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34개 시설에 운영비 114억300만원을 지원해 입소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돕는 한편 직업재활훈련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제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

자리 사업 분야는 활동보조인을 활용해 장애인 가정을 방문, 청소와 빨래, 외출 동행 등을 도와주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직업적응훈련비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에 91억7700만원이 투입돼 장애인의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또 지체 · 신장 · 농아 · 시각 · 지적 장애 등 5개 장애인 단체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5900만원이 지원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과 교통비 지원사업 등에 5억100만원이 투자된다.

이 외에도 노숙인 및 행려자 관리사업에 2억2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

인 기능보강사업에 5800만원이 지원된다.

서귀포시도 지난해 62억원보다 11억2900만원(15%) 증가한 73억2900만원을 들여 장애인생활안정지원분야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지원분야 7개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부랑인보호시설 등 9개 시설에 28억원을 지원해 입소 장애인들의 생계지원과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참여사업에 3억2100만원,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사업과 휠체어농구 대회 등 체육활동 등에 2억190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호응’

장애학생 전인적 발달 도움 등 역할 톡톡

여름방학에 이어 겨울방학에도 실시한 특수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학교인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등 3개 학교에서 방학 중에도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학생들에게 특기 적성교육을 제공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치료교육활동, 특기적성활동, 취미활동 등으로 나뉘 ▲요리활동 ▲에어로빅 ▲컴퓨터 ▲미술치료 ▲놀이치료

▲특수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장애학생들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제주영지학교 재학생 26명, 제주영송학교 재학생 32명, 서귀포온성학교 재학생 30명과 서귀포시 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20명이 참여했다.

이번 방과후 프로그램은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준 것은 물론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보육부담을 줄여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얼굴 없는 천사 수년째 선행 ‘훈훈’

한 익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4년째 쌀 수십포대를 면사무소에 보내 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제주시 우도면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이름과 신분을 밝히기를 꺼린 익명의 독지가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10kg들이 50포대를 보내왔다.

이 익명의 독지기는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연말연시마다 쌀 10kg들이 40~50대포씩을 기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도면사무소는 쌀을 보내 온 발송지를 파악해 독지가를 수소문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으나 우도면 출신이라는 것 외에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우도면사무소는 이 독지가의 뜻에 따라 저소득층 50가구에 쌀 1포대씩을 전달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5% 상향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면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등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 120만5000원에서 126만5000원으로 5% 상향 조정됐다.

또 현금급여도 지난해 103만1000원에서 3% 인상된 105만9000원으로 변경돼 선정 기준은 완화되고 급여는 상향 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상담은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은 물론 교육비, 의료비, 장제비, 난방비, 보육시설 무료 이용 및 재활사업 참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도는 노인 · 장애인 · 아동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1567가구, 2만2754명이다.

지난해 이들에게 1094억5600만원이 지원됐으며, 올해에는 1140억9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시,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8대 분야 전수조사 실시

제주시는 계층별 개성과 적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 보건 · 고용 · 문화 · 체육 · 주거 · 교육 · 관광 등 8대 분야에 복지지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조사 범위 등을 다음달까지 확정된 뒤 상반기중에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필요한 기관 · 단체 등 물적 지원 대상 ▲자원봉사 · 후원자 · 후원

단체 등 인적 지원 대상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령 · 조례 등의 보완 ▲8대 서비스 분야별 욕구에 대한 지원 방법 등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지역 사회 복지자원이 발굴되고, 동원이 가능한 자원과 서비스를 원하는 계층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해 민 · 관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시책과 아이디어를 개발해 8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위기 처한 청소년에 맞춤형 도움”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년상담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성 도벽 약물 등의 비행관련 문제와 왕따 학교폭력 가출 무단결석 등의 학교 부적응 문제, 자살 자해 인터넷중독 등의 정신건강문제 등을 다루는 이 프로그램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다.

제주도청 소년상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과 연결돼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139명이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이들에게 개인상담 1248건, 전화상담 716건, 심리검사 179건, 기관연계 50여 건 등 총 2200여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 평가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36점을, 만족도 평가에서는 평균 4.22점을 얻었다. 또 학교 담당선생님이나 기관

실무자도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대상 청소년만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학부모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나 기관 담당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복지와 자활 등 다중체계적인 접근으로 개입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동적인 상담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청소년 개인과 환경특성에 가장 적합한 상담을 해주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하는 등 서비스 대상자에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jeju1388.or.kr)의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 클릭해 첨부된 의뢰서를 작성한 뒤 접수하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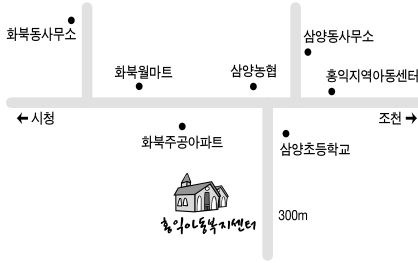
<이소영 명예기자>

시설탐방

(3)홍익아동복지센터

반세기 넘는 아동들의 보금자리

황금돼지해가 저물던 2007년 세밑, 홍익아동복지센터(원장 김순실)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평가에서 전국 273개 시설 중 홍익아동복지센터가 영예의 1위를 차지한 것, 2005년 전국 3위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은 경사였다. 무자녀 벽두, 반세기 넘게 아동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특히 하고 있는 이곳을 찾았다.



리틀사이닝 핸드벨단 등 특기 개발 프로그램 다양 김 원장“아이를 잘 키워내는 기관 평가 받고 싶다”

홍익아동복지센터 설립은 1951년故 고수선 여사가 동문시장에서 천막을 치고 전쟁고아 10여명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 단초가 됐다. 이후 이 곳에 입소한 아동은 크게 늘어 현재 12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1986년 현재 위치인 제주시 도련동에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홍익아동복지센터는 아동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베교실 ▲블럭교실 ▲NIE를 통한 학습 ▲영어교실 ▲놀이치료 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놀이치료실은 지역의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가베교실 역시 지역 아동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아동들의 특기를 개발하고 외부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에버그린중창단 ▲리틀사이닝 핸드벨단 ▲해밀소리 풍물단의 활동은 눈부시다.

에버그린 중창단은 지난해 9월 열린 사회복지인 한마음 축제에 참가해 아름답고 서정적인 화음을 선보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리틀사이닝 핸드벨단은 2002년 현대아산재단의 후원으로 시작한 이후 실력이 쑥쑥 늘어 지난해 ‘제주플루트카톤 앙상블’ 정기공연에 찬조출연 하는 등 지난해에 만 20회가 넘는 공연을 펼쳤다. 다음 달에는 창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도내에서 유일한 국내입양지정 기관이기도 한 이곳에서는 매년 친

권이 포기된 아동 10여명을 일반가정에 입양을 시키고 있기도 하다.

시설 운영 방침을 묻는 질문에 김 원장은 “직원 모두가 5년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하고 있다”며 “홍익아동센터가 정말로 아이를 잘 키워내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모든 아동들이 성장한 뒤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홍익아동복지센터는 아동들이 퇴소 후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립을 돕는 ‘청소년 보호자립 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4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을 포함해 현재 8명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

여느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아동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과 20년이 지난 건물의 낡은 내부를 리모델링해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포근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싶다는 김 원장은 “예산부족이란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교육비 쪽의 투자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과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린다”고 했다.

문의 = 064) 755-0843~4.

www.hongikcenter.or.kr
<조순옥 명예기자>

‘무담보·무보증’ 용자 지원 확대

한도 1500만원서 2000만원으로 늘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의 ‘무담보·무보증’ 용자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무담보·무보증 용자제도를 시행한 결과 올해는 용자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을 늘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용자해주는 기금 가운데 생활안정기금은 2000만원까지 대출된다. 최고 7000만원까지 용자되는 자활기금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무담보·무보증으로 빌릴 수 있다.

제주도는 또 신용정보관리대상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기간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채무조정

내용을 이행하는 자에 한해 500만원 이하의 주택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용자할 계획이다.

이자는 모두 금융권보다 훨씬 저렴한 2.5%다.

제주도는 저소득층의 도덕적 해이감을 해소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자활의지, 자활이템, 생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무담보·무보증 용자실적을 보면 창업·사업자금 12건(1억2500만원), 주택자금 26건(1억5000만원), 학자금 지원 8건(800만원) 등 총 46건, 2억8300만원이다.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사업 공모

이달 접수...4월부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경우 2월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이며,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은 2월 25일까지다.

도 단위 단체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읍·면·동 및 행정시 단위 단체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와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지원되는 노인복지기금 사업비는 3억50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사업비는 2억원이다.

제주도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많은 단체(법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

도록 2000만원 내외의 소규모 예산 중심으로 노인 및 장애인단체(법인)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노인 및 장애인단체(법인)는 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원 신청된 사업에 대해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및 장애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마련, 다음달 심사를 마무리한 뒤 4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22~3),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491, 728-2551), 서귀포시 사회복지과(760-2401, 760-2391).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대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5000만원을 들여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결혼이민자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아동양육지원 사업

을 추진한다. 아동양육사가 결혼이민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 학습지원과 학교 생활 준비, 다문화이해 교육, 영양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임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 결혼이민자와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하며, 한국어교육과 한국 요리교육, 한국문화교육, 가족상담, 산전·후 도우미, 친정어머니(멘토) 및 후원가족 연결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서 노인까지 함께 즐기는 3세대 가족 스포츠 “파크골프 아세요”

비용저렴·누구나 즐길 수 있어 장애인·비장애인 커뮤니티 활성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장애와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휠체어 지체장애인이 주축을 이뤄 장애인파크골프동호회를 결성, 가족·친지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대회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제주에는 ‘탐라파크골프동호회(회장 부대수·지체장애 3급)’와 ‘소남파크골프동호회(회장 최정수·지체장애 4급)’가 파크골프 활성화와 동호인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현재 회원 수는 30여명이며, 전부 지체장애인(1~4급)이다.

최정수 회장 등은 지난해 9월 열린 김천 전국체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파크골프경기에 출전,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어린이서 노인까지 3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스포츠인 파크골프는 참가자들간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소남파크골프동호회원 김경미씨는 “영



상과 사진을 통해서만 보던 필드에 애들과 함께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애들이 엄마 휠체어를 밀어주며 파크골프를 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제주시 회천동에 위치한 한화리 조트에서 주중에는 4000~6000원, 주말엔 5000~8000원을 내면 즐길 수 있다.

〈추영민 명예기자〉



※**파크골프**=Park(공원)와 Golf(골프)의 합성어로,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기는 골프를 말한다. 경기 진행 방법은 골프와 유사하다. 골프와 마찬가지로 4명이 한조를 이뤄 경기에 나서며, 스트로크 플레이와 매치 플레이가 일반적이다. 18홀 기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서장복 관장에 임태봉씨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역점”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제4대 관장에 임태봉씨가 1월 23일 취임했다.



임태봉 관장

임태봉 신임 관장은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사업부장과 사무국장 등을 지냈으며,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먼저실천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태봉 신임 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편승해 복지사업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형태로 승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복지사업 모델을 서귀포시 지역사회 환경에 적합하게 연구·개발해 지역사회의 경제적·복지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보편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영봉씨, 쌀 20포대 기증

산방미곡 오영봉 대표(사진)는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10kg들이 쌀 20포대(시가 56만원 상당)를 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기증받은 쌀을 혼자 사는 노인 등 저소득 가정에 나눠줄 예정이다.

소년소녀가장에 기부금 전달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 생명은 지난해 12월 소년소녀가장 3명에게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사랑나눔 기부금’을 전달했다.

미래에셋 생명은 매년 보험설계사의 신계약 1건당 사랑살천기금 500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후원금을 더해 불우 이웃들에게 나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공동모금회 사무실 이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해 1월 19일 사무실을 제주시 이도1동 제주상록회관 4층으로 이전했다.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소/식/마/당

농협애덕봉사단 총무 강승표씨에 감사패



사회복지법인 제주기톨릭사회복지회는 1월 18일 제주기톨릭교구청에서 열린 ‘2008 신년하례미사 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 가롤로의집에서 포상 추천한 농협 애덕봉사단 총무 강승표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강승표씨는 2005년 3월부터 토요일마다 황사평성지 공동작업장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직장 내에서의 후원자 모집 등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탐라대 사회복지학과, 사랑의김치나눔행사



탐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순용·부정민 교수와 학생들은 1월 13일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정신지체장애인생활시설인 서귀포작은예수의집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탐라대 사회복지학과는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월드비전, 태풍피해 가구에 의류 등 전달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최창일)는 지난해 12월 7일 제주종합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김장 5000kg과 영월무역에서 제공한 의류(재킷과 접퍼) 500상자를 김영훈 제주시장에게 전달했다.

구호물품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태풍 ‘나리’ 피해를 입은 423가구에 나눠줬다.

2008 전국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 참가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형종 회장과 강인철 사무국장 등은 1월 10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최로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08 전국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지역 협회장과 시설장 등은 새해에는 더 나은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탐장복, 사랑의 집짓기·고치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용언)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랑의 집짓기 및 고치기 사업을 실시했다.

탐장복은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을 얻어 벽지와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교체, 화장실과 주방 개선 등의 공사를 실시해 33가구의 주택을 러브하우스로 변모시켰다.

정혜재활원 연세이글스 휠체어농구단 자매결연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해 12월 21일 서귀포시 썬비치호텔에서 서울 연세이글스 휠체어농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우리아이희망센터와 만남이 큰행운”

초등생 두 아들 홀로 키우는 송은심씨 “세상에 희망 주는 사람으로 키울래요”

봄을 재촉하듯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날 송은심씨(39·여)를 만났다. 이혼 후 두 아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온 지가 벌써 7년 전, 은심씨는 바로 엇그제 일처럼 눈시울을 적시며 얇힌 실타대를 풀 듯 조용히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해 미용실 보조일부터 시작한 은심씨. 하루 종일 일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아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면 눈물이 가득 고여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은심씨. 엄마의 품이 한창 그리울 그 시간에 은심씨는 생계를 위해 아이들을 보살필 여력이 없었다. 약삭같은 생활 터럭에 제주시 봉개동에 자그마한 미용실을 얻은 은심씨는 미용실에 딸린 쪽방이지만 세 식구가 함께 살 수 있음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2006년 봄, 은심씨에게 더 큰 행운의 손길이 다가왔다. 봉개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 ‘우리아이희망센터’와 만남이 이뤄진 것.

‘우리아이희망센터’는 삼성의 이웃사랑 성금으로 2006년부터 3년간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지역사회가 든든한 보호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세상과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은심씨에게 센터는 친구이며, 기댈 수 있는 쉼터였다. 초등학생인 두 아들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은심씨는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만 생각해 아이들 가슴속에서 소리없이 자라고 있는 갈증들을 애써 외면했다. 그러나 센터를 이용한 뒤부터는 아이들이 몰라



보게 밝아진 것을 실감했다. 은심씨는 “항상 의기소침해 있고, 다른 사람과는 시선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아이들이 센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자원봉사자들과의 따스한 교감으로 또래 아이들처럼 밝고, 맑고, 티없이 자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손 모아 감사의 말을 전해도 모자라다는 은심씨는 고마움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고 있다. 미용실이 쉬는 매월 첫째 금요일에 탐라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미용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도 무료로 머리를 손질해 준다.

은심씨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센터에서 다시 희망을 만지며, 빈 자리를 채워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켜켜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항상 보듬어 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주하는 센터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다시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좌절하기에는 주위의 사랑이 가득하니까요”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은심씨의 두 아들은 오늘도 소풍을 가듯 센터로 발길을 향하고 있다. <이명자 명예기자>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1) 명당양과



“나눔, 누군가에게 보탬이 된다면...”

본지는 먹거리를 통한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확산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업체들을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첫 순서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명당양과(대표 문종철)를 찾았다.



문종철 대표

명당양과, 2002년 이후 제빵류 1600여만원 후원

‘푸드뱅크’라는 용어도 낯설고 ‘푸드뱅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몰랐던 2000년대 초반, 문종철 대표는 우연히 ‘푸드뱅크’를 통해 남은 먹거리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푸드뱅크’와 인연을 맺었다.

문 대표는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2002년 7월 이후 주 2~3회 제빵류를 꾸준히 후원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600여만원에 달한다.

성이시돌요양원과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이 넘도록 좋은 인연을 돈독히 유지하고 있다. 첫 3년여 기간에는 성이시돌요양원을 찾

아 손수 빵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말벗이 되어 주는 자원봉사를 펼쳤으며, 건강이 나빠져 직접 찾아가지 못하게 된 현재에도 매월 생일잔치 때에는 케이크와 떡을 후원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인효원 등 도움이 필요한 시설과 단체 등에 케이크와 빵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작지만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문 대표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눠 누군가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좋은 나눔 아닌가요”라고 반문한 뒤 “제빵사업을 하는 이상 계속 푸드뱅크사업에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경애 명예기자>



12월 식품기탁자 명단·수량



▲SMC던킨도너츠=도넛 4954개
▲명당양과(신제주)=빵 300개
▲제주물류빵집(포파도르)=빵 400개
▲바로방베이커리=빵 400개
▲제주민속떡집=냉동떡 30kg
▲(주)금강

축산유통=육류 81kg ▲(주)서찬문축산=육류 120kg ▲(주)신세계이마트=통조림류 14개 ▲CJ(주)=양념류 556개 ▲롯데제과=과자류 141상자 ▲(주)우뚜기=부식류 2231개 ▲(주)대상=양념류 173개 ▲동아오츠카(주)=음료류 90상자 ▲동서종합건설(주)=감귤 100상자 ▲심싱부식=김치 30kg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날 제주태고원



제주태고원(원장 정성함)은 1월 20일 개원 3주년에 즈음해 지난해 많은 도움을 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제3회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날’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모범을 보인 제주보호관찰소와 강지연 촉탁의(연강병원장), 색동어머니회 동화구연가 강서정씨에게 이사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손뜻모아봉사회와 한솔민요봉사단, 반야합창단에는 원장 감사패가 주어졌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알림마당

12월 장애인지원협의회 발대식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발대식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초대 회장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봉식 의원이 추대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지원협의회 설립에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산파 역할을 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모집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서비스를 지원할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요강은 ▲신병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지원 등이다.

20세 이상 50세 이하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근무지역은 서귀포시. 문의=064-762-1700.

제8차 에너지그림 워크숍

제주가족사랑상담소는 교육·상담기관 종사자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과 23일 제8차 에너지그림 1,2단계 워크숍을 가족사랑상담소 교육실에서 갖는다. 오는 13일까지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

에너지그림 1단계를 수료하면 에너지그림 검사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문의=064-726-3277.

제주시, ‘더불어 사는 설 명절’ 추진

제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2억 6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혼자 사는 노인 등 어려운 이웃 1만2264세대 2만

1871명과 양로원 등 42개 사회복지시설이다.

물품 지원금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2억800만원), 대한적십자제주지사(2100만원), 제주상공회의소(1900만원), 제주시(1400만원)에서 마련됐다.

Column 칼럼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고 보 선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인간은 대부분 혼자 있기보다 집단 속에 머물러있기를 더 좋아하며, 그 곳에서 위안을 얻고자 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목표와 정서, 가치,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집단을 찾아 나선다. 이러한 이유로 집단마다 자기의 색을 내기 바쁘다. 집단의 존재 이유인 자기의 색 지키기는 강박적이기까지 하다.

집단 속에서 위안 얻는 인간

1590년(선조 23년) 서인과 동인의 당쟁의 예가 있다. 서인 황윤길과 동인 김성일은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되어 일본의 야욕과 침략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황윤길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보고 하였으나, 김성일은 이를 정확한

근거도 없이 부정하였다. 당시 동인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라 김성일의 보고가 채택돼 전란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조선 역사상 최대 비극을 초래했다. 만일 국가의 위기상황이라는 공동의 문제인식 앞에서 집단의 색은 접고 진실을 보고했다면, 전란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며 두 사신은 후손 대대로 치욕적인 당쟁의 사건으로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과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함께 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만의 영역을 견고하게 한다. 즉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공존은 가능하나,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면 권력의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으며, 그 영역과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영역 구분은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고 우위를 점하려는 권력에 대한 욕심과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하는 무지와 다른 집단에 대한 불이해를 가져와 더욱 더 집단에 의지하고 집착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자신을 솔직하게 들

여다보는 눈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그 속에서 자신이 상호의존적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이미 상호의존적 존재의 힘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다. 다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상호의존적 존재 깨달아야

우리가 태안의 오염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것은 우리 모두 연결고리로 묶여 있어 결코 서로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집단의 내면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지혜를 모아야 하며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집단과의 공유영역을 찾아 함께 실마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이 연결고리는 영원히 우리의 족쇄로 남아 역사적 치욕으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조선시대, 당쟁에 눈이 어두워 국가의 안위와 백성들의 고통을 저버렸던 어리석고 무책임한 사신들처럼.

지금, 태안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존재해야 한다!”고.

寄稿 기고

사회복지 지도자 양성 위한 제언



임 원 선 교수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도자론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 TV 드라마에서도 다양한 시대의 지도자들을 주제로 한 역사드라마들이 인기를 끌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정치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 CEO라고 해서 경제분야 최고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의외로 조용한 분야가 있다. 바로 사회복지 분야이다. 서비스의 대상이 사람인 사회복지분야 만큼 리더십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분야는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이 논의되는 만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하지 않은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사회복지분야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협의회·대학등 중추적 역할 담당해야

지도자양성과정 개발·체계적 시행 필요

따라서 사회복지계는 미리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동안 사회복지계는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회복지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기 위해 입법부와 얼마나 소모전을 피웠는가. 또한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과 행정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상의 조직들과 얼마나 갈등해 왔는가. 그리고 이러한 난제를 다른 분야의 힘을 빌어 해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사회복지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기존의 지도자들에게는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이제 사회복지도 지방화 시대가 시작됐다. 각 지역에서 사회복지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계의 현 지도부와 중견 사회복지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자협회, 그리고 각 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이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장 즉 사회복지협의회 임원과 사회복지사협회 임원, 그리고 학계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감대 형성을 기초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인적·물적·공간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자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지도자양성과정 대상자를 직급별로 파악하고 그동안의 재교육 경험을 공유하여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은 지도자양성을 위한 강사진 구성에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의 사회복지 지도자 양성과정은 전국적으로도 미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계에 대한 책무성 요구, 정기적인 평가 등 변화하는 시대에 사회복지계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어야만 한다. 위의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도자 양성과정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해 본다.

독자의소리

가까이 있는 곳, 그곳에서의 나



양 동 혁

제주장애인요양원 공익근무요원

나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복지시설’이란 곳에 가 본 적이 없었다. 중·고교 시절 의무봉사도 집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웠으며 그마저도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으로 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가게 된 것은 2년 전이었다.

그 날, 내가 한 것은 거의 없는데도 그 날의 봉사활동은 나름대로 괜찮은 시간이었다는 작은 생각이 내 마음 속 한구석에 자리잡았고 한동안 친구를 따라 계속 봉사활동을 나갔다.

1년 후,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한 나는 사회에 도움도 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사회봉사요원을 선택, 제주장애인요양원에 배속받았다.

우리의 하루 일과는 말로는 쉽다. 청소, 목욕, 식사 보조, 일상생활 업무 보조. 이것이 우리의 하루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요양원에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매일 이 일과가 반복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긴장과 끝없이 손이 가는 일의 연속인 하루 일과를 힘들게 혹은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나 자신이다. 공익 생활은 ‘작은 사회’에서의 생활이다.

요양원에서 나는 더 이상 보호받던 ‘학생’이 아니다. 군인으로 서 책임도, 생활인들의 안전 등을 신경 써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사회인인 것이다.

난 이 곳에서 선임들과 남자 직원 선생님들을 대하며 형들의 든든함을 알았고, 여자 직원 선생님들의 꼼꼼함을 봤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익혔고, 그로 인해 내가 남에게 어떤 형과 오빠

가 돼야 할지를 알았다. 이 정도면 배운 것은 충분하고도 남치지 않을까?

게다가 내가 얻은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특별한 인격자여서 생활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힘든 일들을 웃어넘길 수 있는 인격은, 힘든 일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 것이 곧 사회복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얻은 점은 사회봉사는 그다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살던 곳,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그곳에서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누면 된다. 그것이 곧 사회봉사인 것이다.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 틀림없이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돌 / 바람 / 감귤 / 도새기 / 갈옷 / 오름...

제주 생태자원 활용 보육프로그램 관심

제주관광대학 유아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대학 산학협력단의 협약에 의해 영·유아기부터 제주의 훌륭한 생태자원을 아끼고 보존하는 성향을 개발 미래의 삶에 대처할 줄 아는 영·유아를 키우기 위해 '제주 생태자원을 활용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 보육프로그램 개발에는 참여솔어린이집과 대정어린이집, 은현어린이집, 제주어린이집, 동산발어린이집, 제주관광대학 부속 어린이집과 부속유치원 등 도내 7개 기관의 원아와 교사, 시설장 등 330여명이 참여했다. 돌, 바람, 감귤, 도새기, 제주마, 갈옷, 물, 오름, 유채 등 제주를 대표하는 생태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개발된 보육프로그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집, 은현어린이집, 제주어린이집, 동산발어린이집, 제주관광대학 부속 어린이집과 부속유치원 등 도내 7개 기관의 원아와 교사, 시설장 등 330여명이 참여했다. 돌, 바람, 감귤, 도새기, 제주마, 갈옷, 물, 오름, 유채 등 제주를 대표하는 생태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개발된 보육프로그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육시설 기존 프로그램과 접목

미래 삶을 위해 유아들의 바람직한 성향계발과 삶의 가치관, 태도를 기르는 일은 유아기부터 자연적, 문화적 토대를 이루는 통합적 보육·교육활동을 통해 자연을 친숙히 여기며 교감할 수 있도록 실제 삶과 연결돼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보육·교육 경험을 통해 일생에 걸쳐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필

목사킨다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것 같다'고 답해 제주의 독특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런 시기에 연구소가 개발한 '제주 생태자원을 활용한 보육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연구소가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은 제주의 독특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아끼고 보존해야 할 제주의 생태자원을 도내 보육시설 현장의 교사들



▲1월 12일 제주관광대학 노형교육관에서 열린 '제주 생태자원을 활용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시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보육시설 교육과 접목...효율적 활용 "전통문화 보존·계승 위한 토대 마련"

요하며,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의 근간을 이루고 제주의 자연,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제주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제주관광대학 유아교육과가 도내 보육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제주 생태자원을 활용한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교사 320명 가운데 96%가 '제주 생태자원을 활용한 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자료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132명(43%)은 '학습 자료가 지원된다면 잘 몰랐던 학습방법을 알게 될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122명(38%)은 '연간 교육계획에 접

에게 연간 교육계획과 접목시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

1년 넘게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한 김민아 교수(제주관광대학 유아교육과)는 "보육교사들을 위해 준비단계에서부터 마무리, 평가까지 단계별로 수업에 필요한 요소는 물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보육과정 모형으로 구성했다"면서 "조사, 탐구, 관찰 등 아동 중심의 프로젝트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돼 제주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유아들이 살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점과 가치를 유아

들의 삶에서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인 보육·교육활동을 통해 실생활에 반영하고, 미래 삶을 위한 준비와 실행 태세를 갖추도록 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토대

이번 보육프로그램은 현대사회의 환경 위기의 원인을 인간 중심 세계관에서 찾고, 환경문제를 인간과 관계를 맺는 생태계의 재발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생태중심, 생명존중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술문명으로 아끼던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일원론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주를 대표하는 생태자원의 가치와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자연과의 공생관계를 지향하는 제주의 미래사회를 위한 보육·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제주의 생태자원을 아끼고 보존하는 일이 미래 삶을 준비하는 것이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일이라는 인식과 가치관을 유

아기 아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유아기부터 제주의 생태자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사, 탐구, 관찰하는 통합적인 보육·교육활동을 통해 이 시기에 형성되는 자연친화적 가치관과 습관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아들이 현재 오염되고 고갈되고 있는 제주의 소중한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아낄 수 있는 인식과 실천이 이뤄져야 미래를 대처할 수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는 1월 12일 제주관광대학 노형교육관에서 도내 보육교사와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제주 생태자원을 활용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에 대한 경과보고와 연구참여 기관의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으며, 활동 게시물과 교구전시도 함께 이뤄졌다. 보고회에는 600여명이 참석해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보고회
이모저모

Jeju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뉴제주 운동
나를 바꾸면 제주가 새로워 집니다.

우리는 제주의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

새롭게 밝아온 무자년의 새아침!

그간 베풀어 주신 關心과 配慮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